



2007 알맹이만 남고 가라 광주시 서구 '기아로'를 달리는 자동차들의 불빛처럼 희망과 좌절의 쌍곡선을 그리던 2007년이 저물고 있다. 올 한해는 '신정아 가짜박사 파문', 'BBK 사건' 등 어느해보다 거짓과 진실이 날선 공방을 벌였으나, 희망과 도약의 씨를 뿌린 해이기도 했다. 거짓과 패배의식, 좌절과 편가르기는 지는 해와 함께 버리고 가자. 새해에는 여수엑스포 준비와 문화수도 광주 건설에 매진하면서 진실과 희망, 도약과 통합의 깃발이 나부끼게 하자.<니콘D3 175mm ISO50 f22 30초 다중노출 촬영> /최현배기자 choi@

내일을 위한 기도

최영미

잘 가라 이천칠년, 어리석은 날들이여
봄부터 겨울까지 앉거나 누워서 내가 도모했던 일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아가, 나무, 내 사랑하는 산이 보이면
초라한 한해를 돌아보는 저녁이 춥지 않아
텔레비전에서 새로운 약속들이 쏟아질 때
나는 책장의 먼지를 털었다

서해 바다를 덮은 검은 기름띠도
우리의 푸른 꿈을 가리지는 못해
우리가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면
누구도 우리를 버리지 못하며
머리 위에서 해가 빛나는 동안, 희망은 죽지 않는다
내일의 집을 지으며 그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으리니
오래 끌고 다닌 보따리를 풀어놓을
집을 꿈꾸며 나는 기도한다

이 냉혹한 별의 어느 서러운 구석에도
따사로운 정오의 햇살을 허락하시는
당신을 믿지 않았던 저를 용서하시고
사랑의 힘으로, 절망의 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
시든 이파리에 생명의 살이 돋고
제가 강인 줄도 잊어버린 흙바닥에 강물이 흐르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창가에 우정이 꽃피게

먼길 떠나는 나그네가
살아서 돌아갈
지상의 모든 길이
영원히 푸른 하늘과 닿게 하소서

당신과 함께라면
가난한 잠을 깨우는
새벽 종소리가 저를 두렵지 않습니다.



최영미 시인은 ▲1961년 서울 출생 ▲시집 '서른, 잔치는 끝났다', '꿈의 페달을 밟고' ▲장편소설 '홍터와 무늬' ▲2006년 이수문학상 수상

내년 총선 광주·전남 사상 초유 경합

광주 7개 선거구 70여명 경쟁률 10대 1...전남은 6대 1 넘을 듯

광주일보 출마예상자 조사

내년 4·9 총선을 100여 일 앞두고 7개 선거구가 있는 광주에서만 출마예상자가 무려 73명에 이르는 등 사상초유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말 그대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전이 예고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이번 선거는 대선과 불과 넉 달도 채 안 되는 시차를 두고 치러지는 것이어서,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끝난 대선 결과가 대통합민주신당에 불표를 준 광주·전남의 총선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광주일보가 28일 현재까지 광주·전남에서 18대 총선 출마를 희망하

나 준비중인 예비후보 명단을 자체적으로 파악한 결과 광주에서는 7개 선거구에 73명이 출사표를 내 평균 10.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구별로는 남구에 무려 13명이 몰려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분구가 예상되는 광산구에는 14명이 출마예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으며, 북갑과 북을에서도 각각 12명과

10명씩이 총선을 목표로 뛰고 있다. 서갑에는 9명, 서울에는 8명 그리고 동구에는 7명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13개 선거구에 82명의 출마예상자가 몰려 평균 6.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다.

목포와 담양·곡성·장성에 가장 많은 8명씩의 후보가 출사표를 제출했으며 여수 갑과 여수을, 순천, 장흥·

영암에서도 각각 7명씩이 자천타천으로 예비후보군에 포함됐다. 나주·화순, 고흥·보성에는 다음으로 많은 6명씩이 포진하고 있다.

광양·구례, 고흥·보성, 강진·완도, 해남·진도, 무안·신안, 함평·영광에는 각각 5명씩의 출마예상자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번 집계는 대선 직후 각 당이 아직 전열을 정비하지 못하고 있는 상

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신당의 전당대회(2월8일) 이후 각당이 본격적인 공천작업에 착수하게 될 2월 초·중반까지는 출마 희망자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일부 선거구의 분구, 또는 통합이 점쳐지고 있는 만큼 예상되는 변수가 더욱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물갈이론'을 바탕으로 한 다자구도도 치러질 가능성이 커 선거가 임박할수록 혼전 양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친기업 정부 만들겠다”

李 당선자, 재계총수와 회동...민·관 '경쟁력강화' 설치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28일 재계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채널로 대통령 취임 이후 민관합동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당선자는 또 "차기 정부에서는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friendly : 친기업적)'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

다. <관련기사 4면>
주호영 대통령 당선자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이 당선자와 재계 총수들과의 오찬간담회 бри핑에서 "정부와 재계가 힘심 단회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 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구성은 이날 간담회에서 재계가 먼저 제안하고 이 당선자가 수용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이 당선자는 이날 또 "선거가 끝난 다음 가장 먼저 찾아 온 곳이 경제인 연합회"라면서 "새 정부는 기업인이

마음 놓고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온 국민이 바라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이 적극 협력해 달라는 부탁을 하러 왔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당선자는 28일 재계 총수들에게 "기업이 적극 투자를 하면 국민이 안심하고 희망을 갖게 된다. 정부가 어떻게 하면 기업이 투자 하겠다는 것인지를 제시해 달라"며 "(기업인들이 투자와 관련해) 나에게 직접 전화 연락을 해도 좋다"고 감쪽 제안도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우일백년 장학 57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http://www.nur.ac.kr

세계로 뻗어나는 미래
전남과학대학
http://www.fur.ac.kr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수세기소라·세기보청기

1588-8460 / 062-722-8111

10215300-9999